

불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나눔 위한 이윤추구 기업문화 확산

중도·자리아타 등 접목하기 최선... 템플스테이·사회봉사로 실천



●윤리경영·나눔경영 시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1월 내년 기업경영의 화두로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경영이념과 기업문화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투명 경영' '정직 경영'으로
'자리아타(自利利他)' 정신을 경영에 응용하고 것이 핵심이다.

영양'과 '고객존중'이란 경영이념 정립을 불교의 '합정도'에서 얻었다.
영양을 개발하고 상품을 구성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았다.

●경영의 새 패러다임 '불교'
성균관대 경영학부 유희화 교수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던 불교에서 기업 경영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자 CEO 얼마나 되나?
국내경영인 13% 650명이 불자
이건희, 구자경, 정몽구, 신격호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이 윤리와 나눔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1차적인 이유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불자 기업인 SK글로벌의 전신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정만원의 경우,
용타 스님이 1980년 불교원리를 바탕으로 명상 등의 각종 수행법을 취함해 개발한 동사실연수를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해

어려 물려,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삼성그룹은 올해 삼성인력개발원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진행한 선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삼성리더과정에 포함시켰다.

참여한 노사대립의 해법을 불교에서 찾는 기업도 있다.
지난 1996년 정부 지정 1호 도매센터로 설립돼 서울 동대문 패션몰의 막을 열었던 프레아타운이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것이 그 사례다.

우선, 유 교수는 "중도의 가르침이 경영철학의 핵심 키워드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즉 분산과 집중, 현상유지와 혁신, 전체와 개인, 모방과 창조 등의 기업 가치를 고민할 때, 불교는 명확한 지침이 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국내 경영인 5천1백 명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종교인 1천883명 중 불교교신자는 34.5%(650명)로 집계됐다.

●대기업들 연수에 수행법 포함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40쪽짜리 <경영과 동양적 사고>란 보고서에서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면서 불교정신이 '新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캠프에 참가한 모습.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면서 불교정신이 '新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캠프에 참가한 모습.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면서 불교정신이 '新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캠프에 참가한 모습.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면서 불교정신이 '新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캠프에 참가한 모습.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팡이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개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명단유(氣)방 051)865-9933
이것이 처방이다
전도제 49개의 결을 가진 처방법
취향전용 명단유(氣)방은 각 사찰, 암자, 칠각관에만 있습니다.

배우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부자 CEO들은 물론, 일반 기업입원들도 불교에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찾고 있다.

기업들은 불교에서 어떤 경영지혜를 배우고, 또 닦으려고 하는가. 기업과 CEO들은 '이윤추구'와 '윤리적인 길'에서의 균형 잡기 방법을 불교에서 어떻게 찾는지 국내·외 기업체를 통해 살펴본다.

## ■ 연 매출 3조원의 동국제강 국민 이익 먼저... 올곧은 장인정신

故 장경호 회장의 불심 '무과업' 기업으로 승화



국내 교지의 철강기업 동국제강을 세운 장경호 회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불교진흥을 위해 사용했다. 사진은 1975년 대한정사 이사회의 모습(맨 오른쪽이 장경호 회장).

근대한국 불교기업하면 떠오르는 동국제강. 1954년 조그만 못을 만드는 공장에서 출발한 동국제강이 2004년 연 매출 3조원 매출 540만 톤의 강철제품들을 생산하는 철강왕국으로 도약한 데는故 장경호(1899~1975) 회장의 독특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 회장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이익을 나누면서 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장 회장은 27세 때 해 봉도사 동안거 결계에 동참한 후 "나는 상업에 종사해 크게 돈을 벌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교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고 한다.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장 회장은 점심 한 끼 사먹는 일 없이, 웅돈 한 폰 스피어 일 없는 근검절약을 실천. 평생 모은 재산 33억원(현재 2천억원 규모)을 불교 중흥을 위해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탄산철강이 불교진흥원, 불교방송, (사)대한정사, 신행모임 대한회 등이 다. 장 회장은 60대까지 매해 동안거를 사찰에서 보내며 참선과 정근에 몰두하는 한편, 평생사에도 아낌, 저녁으로 참선을 하며 경영자이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장경호 회장의 수행자적 삶은 동국제강만의 독특한 불교경영 방침을

만들어냈다. 사치품과 소모품에 치중하지 않고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이기는 경영방식을 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동국제강은 오로지 국가의 국민의 삶에 이익을 주는 좋은 철강제품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일에 눈을 파는 법이 없었다. 장 회장은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전통은 오늘의 동국제강 속에서도 살아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경영관'과 잘 할 수 있는 분야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올곧은 장인정신으로 이어졌으며, 노사가 따로 없이 구성원 모두가 주인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노사공동경영방식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창출해냈다.

동국제강 노사는 1991년 노동선언문을 만들어 '신노사문화'를 주도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철예한 노사문제를 겪던 94년 '항구적 무과업 선언', 95년 국내 최초 무교실 임금타결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동국제강인들은 이런 동국제강의 노사문화를 '노사불이(勞使不二)' 정신이라 표현한다. 이런 노력 끝에 동국제강은 유니언스틸, 국제통운, 동국해운, 국제종합기계 등을 거느린 철강전문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 벽지부문 업계1위 (주)did 사원과 고객 '마음읽기' 성장 동력

허훈중 사장 경영원칙은 '인과법'과 '투명'

'전국시판 3년 만에 벽지부문 업계 1위, 전국20여개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디자인 본고장 이태리 최고의 벽지회사에 디자인 수출, 2003년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대단위 소비자 조사결과 만족도 85.7'

1997년 설립한 한국최초의 전문 벽지 및 인테리어 소재 전문 디자인 마케팅 회사 (주)did. 자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did가 2005년 현재 매출 100억원대 증권기업 진입을 향해 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did 성장의 핵심은 사원과 고객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주는 '마음경영'에 있다. did의 대표이사 허훈중 사장은 인과법을 믿으며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가장 근본 되는 마음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아는 불자다. 허 사장의 이런 마음경영은 기업경영의 핵심을 이루며 곳곳에서 드러난다.

did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중시했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 공급을 사명으로 삼고, 매출액의 20%를 디자인 브랜드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디자이너와의 상담코너까지 마련했다. 당장의 득실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출.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did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허 사장은 모든 직원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위임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did의 이런 경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직원들에게는 주인의식과



DID 직원들이 아침 회의에 앞서 합장인사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에사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did의 마음경영은 열린 경영, 투명경영으로 이어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객과 사원들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밀이나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did는 회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경쟁회사가 알면 지명적일 수 있는 제품의 실시간 재고상황과 앞으로 출시될 디자인까지도, 기업에 다가를 손해보다 고객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언론사 지정 히트상품을 나왔다.

현재 did는 20여개월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주택 미니어처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삭막해지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 웃음과 사랑을 불어 넣고 있다. 사회원 이사는 미니어처의 무상공급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id는 국민들에게 주는 기쁨과 사랑이 더 큰 덕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 일본의 기업들

### “사업할 때는 부처의 일처럼 하라”

후지은행·미추토요사 등 불교정신 고객 감동

'경영은 타인을 돕겠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교세라 사 이사모리 쿠즈오 회장. 전화통화회사 DDi를 창업한 그가 최근 재계를 은퇴하고 입산출가한 일은, 일본 불자기업의 경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모든 상업 활동은 기부의 활동'이라는 확신이 바로 일본 불자기업경영의 공통점이다. 이 같은 경영이념의 시작은 13세기 정토진종의 렌노(1415~1499) 스님이 주장한 '사업할 때는 부처의 일처럼 하라'는 불교경영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불교에서 경영이념을 찾게 됐다. 가장 큰 민간은행인 후지은행의 설립자 야스다 겐지로 회장은 이념을 하는 상업 연구활동이 곧 지혜를 개발하는 길로 믿었다.

을 두지 않는 경영방침을 펼쳤다. 누구든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이는 '아미타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그의 자비관에서 출발한다.

'동체제' 사상을 경영이념으로 한 기업기도 있다. 세계적인 정밀기계 제조회사인 미추토요사를 설립한 누마타 에한 회장과 그의 일가가 그렇다. 지금 불교진도 협회를 맡고 있는 에한 회장의 아들 도시히데 현 회장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세제 제조업체 카오 사를 창립한 마루타 카오 요시로는 노사관계를 '도란'이라 했고, 회사를 '도랑'으로 여겼다. 또 소비자들이 어렵게 하는 상품 연구활동이 곧 지혜를 개발하는 길로 믿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 대만의 기업들

### ‘나눔’ 기업활동의 기본 ‘코드’ 정착

불광산사·자재공덕회 등에 정기적 기부

불교적 마인드를 기업경영으로 도입한 대만 기업 대부분은 철저한 나눔경영을 실천한다는 특징이 있다. 까오슝의 불광산사, 화니엔의 자재공덕회 등 주요 불교단체에 정기적인 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통기업인 신광(新光)그룹 우통시엔(吳棟玄) 회장은 대표적인 불교사회복지단체 자재공덕회에 매년 대만달러 1억원(한화 35억)을 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또 전자제품 기업인 동성(東昇) TV 사는 1999년에 일어난 9.21 대만대지진 사태 당시, 재민들에게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이렇게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은 사회와 동행하여 살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중국신탁상업은행의 경우, 지난 1984년부터 20년간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2만명의 아동들에게 1억6천만원(한화 56억원)을 전달하는 등 이

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 불자기업들의 불교적 경영철학은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1987년 결성된 영동연의회(榮董聯誼會)는 대만불자 기업이 80여 명이 모여 자연재난, 사회복지기금 조성 등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1백만원(한화 3천5백만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불자기업체 21곳을 대상으로 '불교와 기업경영과의 관계'를 연구한 린조우젠(林佐賢) 연구원(대만 국립 중산대학 기업관리연구소)은 "경영자가 불자인 기업의 공통점은 불교가 경영이념, 조직정서 등 다방면에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글린다(慈智雙運)'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 황금잉어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을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길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상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헌신해 힘을 기울이시는 스님분께 영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뵈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 행실도, 신이단,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백비용은 별도부담

##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H-P 018-690-4985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음향연구사 김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 山蔘으로 효력을 높여보아요

#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역!**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침실 안 앞의 山蔘을 사서하여 만삼제에 성공했습니다. 몇부러 전래 내어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엔 산삼보다 효능이 좋더라며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배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폐기에 관계없이 평소나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후라도 구할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산보다 꽃봉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지산(長地山蔘)을 복용하고 도 필 효력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명함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압증이 좋아졌다.
- 만삼이 나왔다.
- 당뇨병이 나왔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시지우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백혈병이 나왔다.
- 만삼피로가 없어졌다.
- 미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입각선이 나왔다.
- 순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에게는 시주부하는 마음으로 열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품 : 시골가 10kg당 40만 원, 20만 원에 드려집니다. 도어,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면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유희와 같은 성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1000원 한정)

만삼(인) 불만삼 10kg 정기 : 전대 : 삼지구연소 - 경강 : 대우 : 강소

- 1Box:69,900 - 2011원
- 2Box:112,900 - 3511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P : 011-9242-8292  
◆ 불법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